



남북강선

2

주체108(2019)
루게 제354호 월간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행진조로 힘있게

작사 황명성
작곡 김동철



1. 이 땅에 찬란 - 한 주체의 빛 발 안



고 하 - 나의 신념으로 우리 심장 불 - 탄



다 위 대 한 - 수령님 과 당 의



부 름 받 들 - 고 언 제 나 - 한 마 음



우 리 식 대 로 살 - 아 - 나 가 - 자

2. 하나를 생각해도 우리의 혁명위해
천만가지 일을 해도 우리의 인민위해
(후렴)
3.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자원으로
자력갱생 기치높이 락원을 세워간다
(후렴)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뜻깊은 광명성절 아침,
 한송이 한송이 향기 그윽한 꽃송이들로 꽃바구니를 엮어
 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껏 어려
 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차 례

자립경제의 도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어 3

일 화

우리 힘이 제일 5

그이의 유혼을 지켜 6

비약의 한길에서 틀어쥐고나가신 분제 7

일 화

창조와 혁신의 열쇠 11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 12

수 기

묘술 13

주체철이 불는다 14

젓갈가공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 18



16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 22

그날의 메아리 24

반 향

《남북정상 백두산에서 한반도평화이지 괴력》 25

주체사상과 민족의 운명개척 26

어린 학생들을 위해 바쳐진 노력 27

실속있게 운영되는 체육소조 28

방문기

휴식일의 농장원들 30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설명절 34

스피롤리나영양식품의 개발자들 36



29

조국의 품에 안겨

참구자의 모습 38



40

고향소식

은천으로 유명한 고장 40

편지

보고싶은 누님에게 42

단상

정성을 기울이는 마을 43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3) 44

인상기

깊은 감동을 안겨준 공연 44

어느 나라에서도 모방할수 없다 45

물치면 큰 힘 46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미술 (2) 47

력사인물

동명왕을 받은 부분노 48

사화

방패에 새긴 시 48



53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 49

민족의 향기

건강식품-콩나물 (2) 50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5) 51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2) 52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어 54

파멸을 재촉하는 반역당 55

정치난쟁이의 고약한 심보 56

조선속담 (민첩성) 36

상식

건강에 좋은 햇빛쪼이기 37

정월대보름날의 민속놀이 39

천공발파기술의 발명극 43

유모아

마픈것은 왼쪽다리 51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어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어

오늘 조국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활력에 넘쳐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조국의 이 거세찬 흐름을 대할수록 이 땅위에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바치신 애국헌신의 자욱이 가슴 뜨겁게 어려온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안아온 CNC화,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력력히 어리어있다. 조국이 시련을 헤치던 고난의 시기

그이께서는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시였지만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였다. 그것은 자기의 과학기술로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워 주체조선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시려는 그이의 애국의 용단이었다. 몸소 련하기계의 적극적인 선전자가 되시어 아직은 CNC라는 말조차 귀에 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스승이 되시어 CNC화실현의 단계별목표를 순차적으로 점령하도록 이끌어주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를 다 헤아릴수 없다.

언제인가 CNC기계를 도입하고있는 어느 한 공

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보라고, CNC기계도입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CNC화를 해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자립적민족경제를 새시대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는 전략적방도라고 교시하시였다.

새시대의 지향에 맞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전략적방도, 진정 이것은 첨단돌파전의 원대한 설계도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막어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조국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신념과 의지가 어떤것인가를 말하여주는 명백한 대답이였다.

그이께서 지퍼주신 CNC화의 불길은 온 나라에 지식경제시대를 불러오는 불씨로, 경제강국건설의 든든한 기초로, 조국번영의 무한한 원천으로 되였다.

그이께서 일으키신 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이땅에는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성강의 봉화가 타올라 주체쇠물이 쏟아지고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새로운 기계들을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서는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식의 초고전력전기기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워 강철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나라의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들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쏟아져나왔다.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고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던 력사의 기적들은 그이의 천만고생속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들이였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초강도강행군... 불리만 보아도 그이께서 바쳐가신 헌신과 로고의 만단사연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력사에 그 류례가 없는 고난과 시련을 뚫고 헤치시며 그이께서 이어가신 강행군로정에는 홍남과 락원의 로동계급이 잊지 못하는 이야기도 있다.

주체98(2009)년 2월초 그이께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였다.

그날 나라의 자원에 의거한 비료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그이께서는 암모니아생산공정을 완성하도록 하자면 산소분리기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자신께서 락원에 다시한번 가보아야 할것 같다고, 직접 가서 대형산소분리기를 잘 만들어줄데 대한 과업을 주어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홍남에서 락원까지는 자동차나 기차로 급행한다고 하여도 많은 시간이 드는 길이었다. 그런데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임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께서 겹쌓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비료생산문제를 푸는데서 더없이 절박한 대형산소분리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드는 문제때문에 불과 석달전에 찾으시였던 락원기계련합기업소로 다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데는것이였다.

더우기 함경남도에서만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 그리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는데 이어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그이이시였다.

얼마후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그이를 모시게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해안의 함흥지구를 현지도하시는데 그이의 영상을 신문과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봐온 락원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함흥지구를 현지도하시는데 그길로 머나먼 서북단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그이의 믿음에 눈시울을 적시며 대형산소분리기를 제때에 생산해낼 결의를 다지였다.

그후에도 그이의 강행군은 줄기차게 계속되였다. 평안북도에서 원산으로, 김철과 라남, 무산, 만포 등 조국강산을 주름잡아 달리신 그이의 강행군은 진정 조국이 세월을 앞당겨 도약하게 한 원동력이였다.

그이의 정력적이고 현명한 령도가 있어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고난과 시련속에서 거창한 세기적변혁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났으며 강국건설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첨단을 돌파한 CNC공업,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의 생산에 이어 마그네샤크링카공업의 주체화 실현,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생산기지들...

조국의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신 그이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이 땅우에 수폴처럼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 주체화가 실현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쏟아져나오는 명제품, 명상품들,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새형의 80hp트랙도르와 5t급화물자동차, 지하전동차,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져주신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 반드시 올라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 일 화 ◇

우리 힘이 제일

하나의 생산공정을 보시고도

주체100(2011)년 1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대안친선유리공장 남포유리그릇분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 있는 일이다.

이날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한해에 수천만개의 여러가지 유리병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유리병생산공정을 꾸려놓은데 대하여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득 일군들에게 공장을 건설하는데 다른 나라의것이 들어간것은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모두 자체로 만든 설비들이라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공장을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것이 마음에 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에 남포유리그릇분공장에서 유리병생산공정을 완공한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공업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시며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물질적유산은 대대손손 제땅에서 제힘으로 살아갈수 있는 주체화된 경제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공장에 꾸려진 유리병생산기지는 우리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신념으로 간직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창조물

주체100(2011)년 1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강행군로정은 홍남비료련합기업소로 이어졌다.

기업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 많은 탑들과 청정계통, 드넓은 공간에 펼쳐진 가스발생로계통, 대형산소분리기 등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였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는 남들이 못한다고 하여도 기어이 해낸 이곳 로동계급의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이 깃들어있었다.

그 모든 창조물들을 일일이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라고, 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였는가고 하시며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 나라의 만년재부를 마련해가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2호가스발생로를 국내에서 생산한 철관을 가지고 우리 식으로 제기일내에 무조건 끝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의가 좋다고, 생각도 잘하였고 결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앞으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기업소에서 생산하여 진렬해놓은 기름려과봉, 고압볼트 등을 보아주시면서 지난 시기 수입하기로 예견했던 여러 설비부속품들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생산공정을 정상운영하려고 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돌아볼수록 기업소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날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돌아보시며 그토록 기뻐하신것은 비단 해놓은 일이 량적으로 많거나 질적으로 좋아서만이 아니였다.

남의것이 아닌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부로 마련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그러도 귀중하고 대견하시여 치하에 치하를 거듭하신것이다.

본사기자



그이의 유혼을 지켜

정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적방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날 염색공정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하신 그이의 교시를 전달 받은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간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기술적으로 의문시하면서 안전하게 설비들을 수입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염색공정을 모두 우리 식으로 꾸릴것을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어떤 기술적담보가 있는것은 아니었다.

해를 거듭하며 애를 썼지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실때 염색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결국 염색공정의 현대화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이의 유혼대로 기어이 염색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일떠섰다.

염색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하는것이 단순한 기술적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관철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 민족적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보고 대한것이 우리 공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염색설비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컴퓨터모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간단하면서도 실리가 있는 염색설비를 착상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설계가 완성되

고 설비가 제작되었지만 결코 첫술에 배부른것은 아니었다.

시험과 실패가 거듭되고 기술협의회와 심의가 잇달았다.

하지만 우리는 끝끝내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완성하여 염색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었으며 이전 설비들에 비하여 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염색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정방기들의 가락회전수를 더욱 높여 정방기의 고속도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교시관철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공장에서는 더 많은 천을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 과정에 기일을 앞당겨 수많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나오고있다.

우리 공장은 년간 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

나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공장의 주체화, 현대화를 더욱 완성하며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들의 입을 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기어이 풀어드리기 위한 사업에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나가겠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인 오경철

비약의 한길에서 틀어쥐고나가신 문제

오늘 우리 조국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제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적대세력이 한g의 강철과 원유 지어 어린이들의 놀이감마저도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책동을 가하는 속에서 우리 조국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는 오늘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적대세력의 극악한 책동으로 인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 조국이 어떻게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며 비약의 한길로만 가고있는지.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조국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여 발휘해가고있는데 있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연구기

관과 공장, 기업소 등 경제강국건설의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어서도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는데 주요한 요인이 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그이께서 선차적으로 내세우신것은 과학기술발전이다.

그것은 강력한 국가건설은 과학기술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더우기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날이 갈수록 보다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승패를 결정하는 초미의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

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과학전선이야말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말씀하시였으며 그후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고 강조하시며 과학자, 연구사들이 나아갈 앞길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찾시는 곳마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하여 늘 강조하고계신다.

어느 한 기업소에 가시어서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

자체의 힘으로 만든 화물자동차와 트랙토르들 주체106(2017)년 촬영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① 선경철감공장에 꾸러진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 ②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분향기화장품전시장)

계급의 혁명적본때와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기업소를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고 어느 한 메기공장을 찾으시어서는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묘술과 방안을 안겨주신 그이이시다. 그리고 어느 한 기계공장에 가시어서는 제품생산과 질제고, 설비관리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명확한 길을 가르쳐주시었다.

현지지도의 나날 그이께서 매번 들리신 곳은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보급실이었고 자주 하신 말씀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한 원료와 자재, 설비의 주체화실현이었다.

그이께서는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현대과

학기술을 배우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현대화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 바로 주체화실현이라고 그 목표도 정해주시었다.

그리고 성과가 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현지에 나오시여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을 보고 또 보시며 해당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몇해전 그이께서 당시의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조국인민은 잊지 못하고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가슴이 뭉클하도록 기쁜것은 단순히 우리 식의 아크릴계칠감을 생산하는것을 보

게 된것만이 아니라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우리의 힘과 기술, 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했기때문이다,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이

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

이 난다는 철리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할 때 못해낼일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으로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

고 지하전동차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며 시운전차에까지 오르시여 그토록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조국인민이 새겨안은것은 바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만이 승리하는 길이며 바로 그렇게 할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이렇듯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가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조국인민들을 끝없이 분발하게 하였으며 누구나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하였다.

하기에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연구개발령역을 세계적인 첨단과학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는 넓은 령역으로 확대하고 첨단기술들을 련이어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기계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생산하였다. 주체107(2018)년 촬영





평양가방공장에서

제작공업분야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국가과학원과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새형의 화물자동차, 트랙토르,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만능화된 고기배 등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단천제련소, 천리마타일공장, 삼천메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이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되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등의 금속공업부문에서 콕스대신 무연탄으로 선철을 생산할수 있는 산소열법에 의한 생산공정이 확립되었으며 주체화된 첨단설비들로 가득찬 경공업공장들에서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생산되어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을 도모

하고있다.

그리고 조국의 동해기슭에는 우리 식의 석전만해상철길다리가 건설되고 서해기슭에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방법으로 대량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이러한 현실이 펼쳐지게 된 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거나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만 보아도 그전에는 거의나 주저앉았던 공장이었다. 하지만 이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원격화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로 전변시키었으며 새형의 성능높

은 무궤도전차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오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온 나라 곳곳에서 련쇄적으로 이룩되고 있으며 혁신적인 그 소식들은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대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자기 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산악같이 일떠선 조국인민의 이런 전인민적인 창조투쟁은 조국땅우에 반드시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기철

◇ 일 화 ◇

창조와 혁신의 열쇠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창조와 혁신을 안아오는 기본열쇠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나날에 있었던 사실들을 소개한다.

주체화된 생산기지로

주체107(2018)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다.

식료가공설비들과 기대마다에서 쏟아지는 150여가지나 되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가지수가 많다고, 별의별것이 다 있다고 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해 이악하게 투쟁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모든 생산공정들을 보다 완벽하게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공장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기본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와 설비에 의거한 주체화된 생산기지로 꾸려나가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종업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켜 그들속에서 기술개전과 설비현대화에 한몫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 기발한 착상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날 생산장성의 기본고리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있다는 그이의 말씀을 전달 받은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더욱 완성해갈 결심을 다지였다.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도록

주체107(2018)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무궤도전차에 오르시어 성능과 의장품의 질을 일일이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어려 있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볼수록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무궤도전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야심을 안고 과학과 기술에 의거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공장을 산업시설맛이 나게 꾸린데 만족하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더욱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밀고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나래를 펼쳐주신 그이를 우러르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현대화의 새로운 목표를 점령하고 무궤도전차생산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의지로 가슴을 불태웠다.

본사기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

오늘 조국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거세찬 동음으로 경제강국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제끼고있다.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국앞에는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국이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자립경제강국이며 지식경제강국이다.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길은 곧 인민들의 생활이 유족해지고 우리 조국이 강대해지는 길이다.

우리가 잘살고 강대해지기를 바라는 나라도 없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나라도 없다. 또 남의 덕으로 잘 먹고 잘살겠다는 자체가 망상이며 그 후과는 굴종과 예속뿐이다.

우리가 잘사는 길은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이며 그 지름길은 다름아닌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자력자강의 길이다.

오늘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극악한 경제제재를 가하고있다. 그들은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은 2중 용도로 리용될수 있고 화장품원료는 화학무기생산에 쓰일수 있으며 쌀은 군량미로 전용될수 있다고 하면서 수백가지에 달하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로 조국의 앞길을 각방으로 막아하고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자력자강만이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해주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확증할수 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가 강국의 징표로 될수는 없다. 과학기술이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노예로 굴러떨어지고마는것이 현실이다.

자강력은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중시를 요구한다. 현대적과학기술이 안받침되어야 자강력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키울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라와 민족의 륜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강원도사람들의 투쟁경험은 과학기술력에 의거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모든것을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고난의 행군시기 주저앉았던 안변요업공장이 도안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여 수십가지의 타일과 위생자기, 기능성보온재를 짙짙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변된것도, 콕스와 수입전극이 없으면 생산을 못하던 문천강철공장이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와 연료를 가지고 강철생산을 정상화해나가는 힘있는 공장으로 된것도, 마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인공잔디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지일용품들을 생산하여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는것도 모두 과학기술중시의 결과이다.

지금 조국은 세계와 당당히 겨루기 위해 경제부분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를 비롯한 모든 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나가고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총명한 두뇌를 가진 조국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되면 이 세상 못해낼것도, 두려울것도 없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런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달라붙을 때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가 더 빨리 추진되고 생산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확고히 인식한 조국인민들이다.

과학기술중시를 가사처럼 여기고 지식경제시대의 과학기술인재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기여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단을 뚫고나가는 조국인민들에 의해 우리 조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윤정

수 기

요 술

나는 이따금 길을 가다가도 거리를 달리는 새형의 궤도전차를 볼 때면 절로 기분이 즐거워진다.

사람들도 나를 만나면 미남자처럼 잘 생긴 궤도전차를 만든 지배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묘술을 가지고있었기에 이렇듯 멋있는 궤도전차를 만들수 있었는가고 묻곤 한다.

그런 물음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묘술은 다른데 있지 않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말이다.

우리는 그런 신념과 배짱으로 궤도전차를 만들어냈으며 지금도 만들고있다.

지난해 우리 공장에서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던 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 빠스수리공장에서 궤도전차생산을 주관하게 되니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

궤도전차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자재와 로력도 매우 긴장하였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공화국창건 일흔돛까지 궤도전차를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낼 결심에 생산에 달라붙었다.

궤도전차의 심장부라고 말할수 있는 전동기를 제작할 때였다. 우리는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종전의 직류전동기보다 생산원가가 적으면서도 운영에 편리한 새형의 전동기를 제작하는것과 함께 속도변환장치와 조

종프로그램도 우리 식으로 개발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전투를 벌리었다. 처음하는 일이다보니 실패가 련속 뒤따랐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기계공업성산하 어느 한 공장의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교류전동기와 직류전동기의 우점들을 살린 비동기전동기를 궤도전차전동기로 선택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전동기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공장로동계급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온 현장이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그 나날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편제동장치와 레루제동장치도 우리 식으로 개발해나갔다. 부분품이 무려 백여종이나 들어가는 장치들의 개발시힘이 련속 실패하자 일부 사람들은 맥을 놓고 나갔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기일도 박두한데 당장은 손쉽게 낚은 궤도전차에서 그 장치들을 회수하여 리용해보자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자력갱생을 틀어쥐고나간다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바퀴와 탄성판, 베어링과 각종 완충고무를 비롯한 수많은 부속품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편제동장치와 레루제동장치를 만들어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여기에서 힘을 얻은 기술자, 기능공, 로동자들이 더욱 성수가 나서 궤도전차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하루일이 끝나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궤도전차발전실태와 과학기술자료들을 보면서 지식의 랍을 쌓았으



며 그 과정에 새로운 발명, 창의 고안들이 련거퍼 쏟아져나왔다. 수도려객운수국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락랑궤도전차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궤도전차생산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하나와 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녉달만에 우리는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어낼수 있었다.

떠약별이 쏟아지던 지난해 8월초 우리들이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를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만듯 기분이 들뜬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나 되겠는가 하시며 심중에 차오른 걱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었다.

《이 궤도전차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투철한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만든 자력갱생의 산아입니다.》

나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새형의 궤도전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수도의 려객운수문제를 푸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빠스수리공장 지배인 박홍룡



산소열법용광로직장 전경



가스발생로

주체철이 끓는다

나라의 철강재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늘이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직장 직장장 최주철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의 집체적지혜를 적극 발동하고 과학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

이고 매일 맡겨진 선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강철1, 2직장에서도 강괴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특히 강철2직장 3호전기로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



지난해 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산소열법용광로와 산소분리기, 류동층가스발생로를 성과적으로 일떠세움으로써 록스에 의한 철생산에 중지부를 찍고 주체철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철생산공정을 확립한데 맞게 주체철생산의 선행부문인 산소열법용광로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선철생산을

의 로동계급은 자신들이 강철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로관리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과 함께 새로운 로조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주체쇠물생산의 실수률을 높이고 생산량을 더욱 늘여나가고있다.

가열작업반에서는 남비가열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로의 정상운동을 보장하고 남비가열속도를 높이고 있다.

성과는 가스발생로직장에서

도 일어나고있다.

이곳에서는 류동층가스발생로를 새롭게 일떠세운데 기초하여 공기, 증기, 급탄량조절을 비롯하여 로온도의 정상보장을 위한 기술공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열간압연에 필요한 가스생산량을 부족 늘이고있다.

가스발생로직장 직장장 박영국은 《주체철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

다는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 주체철생산에 필요한 질 좋은 가스를 원만히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생산장성의 성과는 열간압연직장에서도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직장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적극 발동하고 새로운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가열로와 압연기들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제품

의 가열시간을 줄이면서도 과학기술적지표가 철저히 보장된 수많은 열간압연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오늘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주체철생산의 동음은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울리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리광성



대형산소분리기 조종실

수직식련속조피기에서의 강편처리



열간압연직장에서





젓갈가공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

젓갈은 오랜 세월 그 감칠맛과 높은 영양학적효과로 하여 조국인민들의 식생활에 널

리 리용되여온 식료품들중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에는 수공업적방법으로밖에 만들수 없

다던 젓갈품을 오늘은 조선서해 금산포지구에 여러가지 젓갈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

할수 있는 대규모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젓갈가공의 수공업적방법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는 원료입하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

이 최대의 위생안전성과 최고의 품질을 담보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구축되어있다.

그런데로부터 공장에서는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건등이젓, 까나리젓, 멸치

젓, 조개젓 등 7가지 기본지표의 생산품외에도 굴젓, 낙지젓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별식생활풍습과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염도와 매운맛을 합리적으로 정한 여러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었다.





젓갈가공품들이 공업적방법으로 생산되고있다.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각종 부원료와 조미료를 첨가하여 젓갈품의 가지수를 더욱 다양하게 하고 그 질을 개선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젓갈의 숙성과정에 생기는 젓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여러 종류의 간장도

생산하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일군인 류정식은 말하였다.

《사실 우리가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의 실패를 보면 정말 령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기준으

로 삼을만 한 자료도 없었고 또 경험 같은것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인민을 위해 세상에 없는 젓갈공업화의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세계를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서로가 힘을 주고 지혜를 합쳐가며 어려운 과학기술의 초행길을 하나하나 개척해나갔다.》

그러면서 그는 제일 힘들었던 과학기술적문제의 하나가 젓갈의 공업적인 숙성공정

을 확립하고 그에 따르는 숙성조종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공장기술일군들의 노력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고 하였다.

젓갈의 질을 담보하는 품질관리체계와 바다물정제 공정,

압축공기생산공정 등 그 어느 공정에나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드높은 창조적 지혜가 깃들어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젓갈품생산의 공업화수준을 보다 높여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게 선진기술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젓갈품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고 가지수를 부단히 늘여나가고있다.

민족의 우수한 젓갈문화를 발전시키고 맛있는 젓갈품으로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해가려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변찬우

제품저장고



인기를 끄는 《금산포》제품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월 1일 주체108(2019)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올해에 조국인민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에 우리앞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능력을 확대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과업이 나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지며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나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한해동안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관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갈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입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미관계와 관련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역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6. 12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새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는것과 미국이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공화국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는데 대해서와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가 공화국의 성의있는 립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의 마지막부분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 * *

그날의 메아리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역광장(당시)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긴긴 밤을 환희속에 잠 못 들며 새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인민들이 평양역앞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우리 군대가 열병식을 한대요!》, 이 한마디 소식은 평양역으로 향한 길이란 길은 짝 메웠고 지어 대동강의 얼음우도 사람천지로 되게 하였다.

이날 평양역광장으로는 평양시민들은 물론 지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수는 40여만명을 헤아렸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탓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자기의 군대가 없는 설움을 똑똑히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래서 자기의 군대가 태어날 날을 오매불망 기다려왔고 우리 군대의 모습을 한시라도 빨리, 누구보다 먼저 보고싶은 충동을 누를 길 없었다.

오전 10시를 가까이 할 무렵,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엄숙히 정렬한 열병대오는 물론 주위의 군중들속에서 감격의 파도가 일었다.

그이께서는 무한한 흥분과 격정의 열파가 세차게 끓어번지는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인민군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를 열렬히 축하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이처럼 우수하고 영광스러운 인민군대를 창건하였다는 것은 조선민족이 자기 손으로 능히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기 조국을 세계선진국가들의 대렬에 올려세울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시위하는것이라고, 인민군대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그이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장내는 커다란 감격으로 끓어번졌다. 이어 군악대의 장엄한 《애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대의 창건이 선포되고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국가》의 주악이 울리고 이에 화답하는 수십만 군중의 합창이 평양시를 진감했다.

신호탄발사의 총성이 울리자 인민군대의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보병대, 기마대, 그에 뒤따르는 각종 대포들... 잠시후 푸른 하늘에 편속 축포가 날아오르자 군중의 감격은 고조를 이루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오늘도 그날의 메아리는 우리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고동치게 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정규무력의 건설은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징표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관건적인 문제였다.

더우기 자기를 지켜줄 변변한 군대마저 없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갖든 아름다운 삼천리강토를 일제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제 이름 석자마저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 나라 군대, 정규적혁명무력을 가지는것은 사무친 숙망이었다.

하지만 정규무력건설에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중에서 제일 걸린 문제의 하나가 정치와 군사를 겸비한 유능한 군사지휘관이 부족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8월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으며 항일의 나날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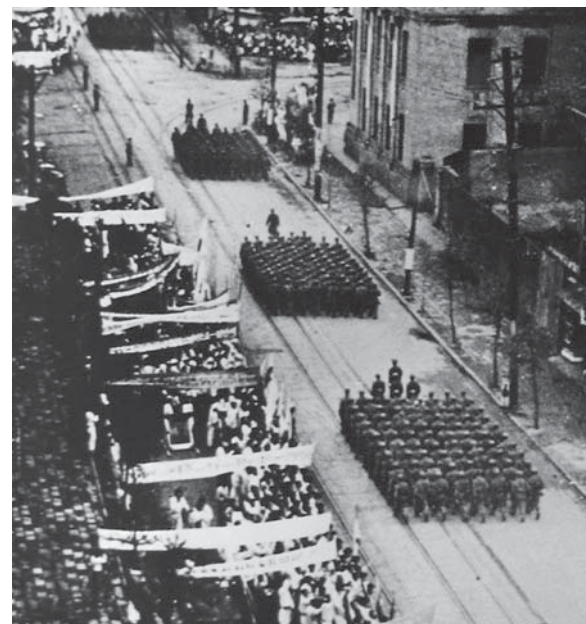
정규무력건설의 나날 그이께서는 필요한 지휘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몸소 현지에 나가시어 평양학원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의 교육교양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땅크병, 포병, 공병, 통신병 등 정규무력의 여러 병종의 부대들을 조직하고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무장장비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이렇듯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되어 조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혁명의 년대들과 세기를 이어오며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인민군은 오늘도 래일도 백승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슬기

조선인민군 열병대오를 환영하는 수도시민들



반향

《남북정상 백두산에서 한반도평화이지 피력》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5차 북남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은 남녘땅은 물론 세계를 커다란 충격과 환희,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특히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은 남조선언론들과 겨레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련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경제》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남북정상 백두산에서 한반도평화이지 피력》, 《천지에 새 력사의 모습 담아》, 《천지내준 백두산기운, 평화의 한반도 서광될것이다》, 《백두산방문 축하》 등의 제목으로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을 탐승하신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은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성산에 오른것은 정말 대단한, 통일의 징조를 보이는 의미있는 일이다. 백두산에서 남북정상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것은 8천만 민족과 전세계에 〈우리가 이제 평화로 간다.〉, 〈평화의 첫출발은 백두산〉이라고 전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정계인사들도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을 축하하는 론평들을 통해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참으로 뜻깊다, 백두산은 민족의 혼이 어려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곳이다, 국제적으로도 북남이 한 뿌리라는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백두산방문은 조선반도에서 랭전이 종식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5천년을 함께 살던 민족에게 희망이 생겼다.》, 《평양에 갈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진 것 같다.》...

서울과 광주 등 남조선각지의 주민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들에는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이 우리 겨레모두에게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그대로 어리여있다.

본사기자

주체사상과 민족의 운명개척

민족은 오랜 역사적과정에 형성된 독자적인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이러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간다면 올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참다운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사상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운명개척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자주성을 떠나서는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자주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자신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민족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속성이다. 민족의 생명을 이루는 자주성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을 기초지으며 민족의 튼튼발전을 이룩하고 추동하는 원천, 근본요인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자기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다. 만일 한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킬수 없으며 결국은 민족의 운명도 오히려 개척해나갈수 없다. 오직 민족자주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부흥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으로 되며 이러한 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될 때에 민족이 존재하고 발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밝히었다. 이로부터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이 가장 선차적문제이며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나라와 민족앞에 나서는 근본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때문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

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민족의 운명은 참답게 개척되어나갈수 있게 된다.

주체사상이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참다운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해나간다면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족자체의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창조적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주인은 민족자신이며 그 결정적요인도 민족자신의 힘에 달려있는것만큼 민족자신이 자기 운명개척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구현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것을 밝히었다. 뿐만아니라 창조적립장에 서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현실적조건에 부합되는 근본립장으로 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존엄이 세계에 높이 떨쳐지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다름아닌 민족의 운명개척의 참다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진하여왔기때문이다.

력사와 현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민족의 녁과 신념을 억척으로 다져주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경제대학 박사 부교수 황이철

어린 학생들을 위해 바쳐진 노력

교원이나 부모의 도움이 없이 어린 학생들 혼자서도 능히 수학 과 국어학습을 진행할수 있다.

이것은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인 《속셈의 별》과 국어학습지원프로그램인 《반짝별》이 나오면서부터 더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백두산경제연합상사 정보기술제품개발실 연구사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개발실이 처음 무어졌을 때 김혁실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무엇을 첫 제품으로 내놓을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사색을 거듭하던 어느날 김혁실장은 소학교시기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도움을 주는 수학 학습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연구사들과 토론을 거듭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연구사들은 지난 시기 카드식으로 진행하여오던 속셈학습방법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새로운 착상을 프로그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탐구의 낮과 밤을 보냈다.



새로운 학습지원프로그램개발을 도의하는 연구사들

김혁실장과 김위훈, 조성광, 안광일, 김정선연구사들은 평양시안의 소학교들에 나가 학생들의 동심을 연구하고 교원들을 만나보면서 프로그램의 내용들과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박지원, 최상철, 리유주연구사들도 소학교학생들의 두뇌단련과 실력제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좋은 안들을 제기하였다.

그 나날 실패의 쓴맛도 여러 번 보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

았다. 밤을 새워가며 학생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유영희 모란봉구역 긴마을소학교 부교장은 연구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학생들과의 수업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프로그램에 꼭 반영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도 안받침해주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프로그램은 완성되었다.

학습지원프로그램 《속셈의 별》, 《반짝별》은 소학교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실속있게 운영되는 체육소조

모란봉구역 서흥소학교에서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기에 학교에서는 정일봉상 전국청소년 학생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태권도남녀단체를 경기에서 여러번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여 나어린 《태권도명수》들을 수많이 배출하였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재들로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바친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의 체력단련에 좋은 체육소조들을 방법론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와 탁구, 축구소조운영에 많은 품을 넣고 있다.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소조실들을 잘 꾸려놓고 그에 필요한 체육기자재들을 원만히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적성체질을 가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소조들에 망라시키고 있다.

학교에서는 체육지도교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학교의 모든 교원들의 체육자질을 높이는 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소조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체육지도교원들의 실무학습을 자주 조직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체육교육의 질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지도교원들은 자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소조원들을 전도유망한 체



《속셈》, 《24표》, 《기록》, 《련습》 등으로 구성되어 한자리수부터 네자리수사이에서 더하기와 덜기,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속셈을 진행할수 있고 학습정형에 대한 기록을 자료기지화하여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국어학습지원프로그램 《반짝별》 개발에 달라붙었다. 앞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아서인지 연구사업은 잘 진척되었지만 우

리 말의 발음부분에서 그만 멈춰서게 되었다.

이것을 안 정혜순연구사는 스스로 화술과 관련한 여러 책들을 탐독하면서 발음법을 익혀나갔고 소학교학생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떤 억양을 좋아하고 어떻게 말해야 알아들을수 있는가 등을 연구하여 우리 말 발음에 대한 정확한 록음을 함으로써 《반짝별》이 학생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혁실장은 프로그램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기초편향목도 설정해주어 누구

나 흥미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심리를 명중한 《반짝별》은 나오자마자 호평을 받았다.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들과 소학교들에서 축하의 인사를 받을 때면 김혁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학생들모두가 기초를 튼튼히 닦아 조국을 빛내이는 별이 된다면 우리는 더 바랄것이 없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육선수후비들로 키우고 있다.

김향심태권도지도교원은 소조원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단위 시간동안에 한가지의 기초동작이라도 정확히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태권도의 동작을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는 유희적인 훈련방법을 탐구하고 실천에 구현하여 소조원들의 유연성과 재치성을 해결해나감으로써 훈련

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하기에 지난 기간 학교의 태권도소조원들은 제38차부터 제43차까지 정일봉상전국청소년 학생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태권도남녀단체를경기에서 여러차례 우승을 쟁취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나어린 이곳 태권도소조원들이 시범출연을 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황성축구지도교원도 지면공다루기, 공중공다루기, 공물기, 일대일빠물기를 비롯

한 축구의 기초기술훈련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소조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훈련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탁구소조의 문학명지도교원은 소조원들이 탁구에 재미를 붙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탁구운동의 기초기술동작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습득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오늘 학교를 졸업한 많은 소조원들이 평양국제축구학교와 체육단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휴식일의 농장원들

우리는 얼마전 휴식일날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았다.

하나의 도시구획을 방불케 하는 장천지구의 현대적인 온실들과 공공건물들, 문화주택들은 보면 볼수록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된 단층, 소층의 문화주택들, 문화회관, 편의봉사시설인 장천원과 배구장,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양어장까지 있는 공원을 바라보느라니 우리의 마음도 자연히 흥그러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농장의 전경에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어디선가 흥겹게

울리는 농악소리가 우리의 귀가에 들려왔다.

호기심을 안은 우리가 흥겨운 장단소리에 이끌려 그곳에 가보니 농장원들이 농악무를 펼쳐놓고있었다.

남새1작업반과 남새7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민족의상을 차려입고 새납과 꿩파리, 장고를 불며 치며 춤을 추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특히 열두발상모를 재치있게 돌리면서 여러가지 기교를 펼쳐보이는 남성농장원의 모습과 매력있는 꼬리치마를 입고 장고를 치며 춤을 추는 여성농장원들의 모습은 볼수록 흥취를 돋구어주었다.

이채로운 농악무에 심취되어있는 우리에게 농장의 관리위원장 김명연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 농장에서는 농악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정서생활로 휴식일을 즐겁게 보내고있습니다. 아마 장천원에서는 작업반별탁구경기가 고조를 이룰것입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농장원들의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방금 리발과 미용을 하고 더 젊어보이는듯 한 자기들의 모습을 새삼스레 거울에 비쳐보고있는 청

춘남녀들과 가족사진을 찍으며 휴식일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2층에 있는 탁구장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는 농산1작업반과 농산4작업반사이의 탁구경기가 절정을 이루고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관리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두 작업반은 지난해 농사에서 서로 경쟁을 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탁구경기에로까지 이어지고있다는것이였다.

련속 강타하는 농산4작업반 반장의 모습은 전문선수들 못지 않았고 넘어오는 공을 다양한 깎아치기로 처리하는 농산1작업반 반장의 탁구기술 또한 여간 아니였다.

농장원들의 열띤 응원속에 진행된 탁구경기에서는 남녀 개인단식, 남녀복식, 혼성복식



작업반별탁구경기와 예술소품공연준비를 하고있는 농장원들



장천원에서



여성관리위원장의 참가밑에 진행되는 농악무연습



가정들에서도 휴식일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경기들에서 모두 농산4작업반이 이긴것으로 하여 종합1등을 하였다.

우승의 기쁨을 안고 우리와 만난 농산4작업반 반장은 《휴식일이면 이렇게 분조별, 작업반별탁구경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들이 진행되군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을 통

하여 작업반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체육열풍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작업반이 우승을 할수 있는것도 평시에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기술을 꾸준히 련마해왔기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농장원들의 정서생활은 오후에 이르러 가정들사이의 민속

오락경기와 민족로리경연으로 이어졌다.

장천리 17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조정환농장원의 집에서는 세대주와 농장기사장사이의 장기경기가 한창이었다. 그들이 《장훈-》, 《명훈-》 하면서 승벽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다른 방에서는 웃놀이를 녀성농장원들이 흥을 돋우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농산2작업반의 송명숙의 가정에서는 분조간의 민족로리경연준비로 분주하였다.

가정의 년장자인 송명숙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기에는 1분조에서 일하는 그의 동생인 송명옥과 가정의 며느리 문현화 그리고 다른 분조의 녀성농장원들이 참가하고있었다.

온실에서 키운 남새로 여러가지 반찬을 만드는 송명옥의 료리솜씨도 보통이 아니였지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떡국과 여러가지 떡을 만드는 며느리의 음식재간 또한 남달랐다. 그들 가정만이 아니였다.

농장의 그 어느 가정, 그 어디를 가보아도 다양한 문화정서생활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

는 농장원들이였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 어둠이 깃들자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그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 웃음소리를 뒤에 남기고 이곳 농장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설명절

설명절이 오면 조국의 어디 서나 민속놀이, 민족체육경기로 흥성이고있다.

가정에서는 윷놀이와 장기놀이로 흥을 돋우고 밖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연띄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으로 설명절의 풍경을 다채롭게 장식하고있다.

특히 놀이형식과 방법, 도구가 간단하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로소가 한자리에 모여 즐길수 있는 대중적인 민속놀이인 윷놀이가 인기를 끌고있다.

처음에는 아이들놀이이라며 점잔을 빼다가도 일단 윷놀이

판에 앉아 윷알에 따라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른들도 동심에 빠져 저도 모르게 열을 올리게 되는 윷놀이.

할수록 또 하고싶고 승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윷놀이는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조국에서 더욱 재미있는 놀이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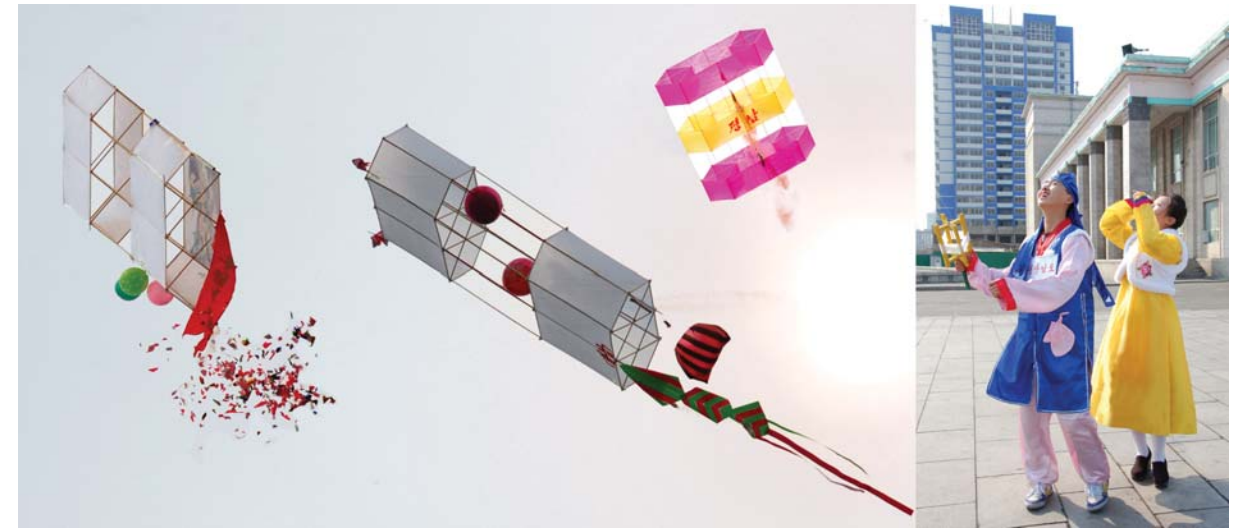
이뿐이 아니다.

바둑, 장기놀이로 시간을 아예 잊은 사람들도 있고 다시 장기쪽을 물리자니 뭐니 하면서 웃음거리가 되어 폭소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다.

학생소년들의 연띄우기, 줄넘기, 제기차기와 팽이치기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맑고 푸른 하늘에 품을 들여 성의껏 만든 연들을 띄우며 거기에 자기들의 부푸는 희망과 꿈을 실어보기도 하고 하늘높이 날아올라 춤추는 연들을 바라보며 누구의 연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가를 겨루기도 하는 연띄우기는 학생소년들의 열의로 하여 자연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여기에 뒤질세라 제기차기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들, 누가 다리힘이 더 센가를 겨루



연띄우기

는 소학교 남학생들의 무릎싸움, 집단의 단결력과 힘을 보여주는 학생소년들의 바줄당기기, 재주를 겨루는 팽이치기 등은 어른들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세계에 빠져들도록 만든다.

설명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민족체육경기도 불만하다. 응원열의 높은 속에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바줄당기기, 태권도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정말이지 어디 가나 민족적 정서가 차넘치고 민족의 향취 짙게 풍기는 내 조국의 설명절

이다. 이날을 맞으며 가정에는 더 큰 기쁨과 화목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마을사람들이 그리고 집단들사이에는 화목과 단합이 더 한층 굳어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줄넘기



넙뛰기



팽이치기



스피롤리나 영양식품의 개발자들

스피롤리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빛합성미생물이다.

이 물질은 단백질, 지방질, 당질, 광물질, 비타민 등 인체의 영양성분을 모두 함유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인류의 미래식량》,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건강식품》, 《우주식품》 등으로 불리우고있다.

스피롤리나는 35억년전에 생겨난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이자 다른 생명체들의 성장을 도와

온도, 빛세기, 시약 등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그중에서도 높은 품질의 스피롤리나를 배양해 내는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다.

전봉준, 강윤희, 계영심을 비롯한 협조사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끊임없는 사색과 집체적인 토론끝에 그 관건적인 고리를 배양에 쓰이는 물의 수질과 배양액의 영양원으로 될 바다생물화석에서 찾게 되었다. 바다생물화석에는 무균적이면서도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여러가지 생물활성물질들이 들어있어 필수 미량원소의 보물고나 다름없었던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바다생물화석과 수질이 좋은 샘물을 리용하여 품질이 높은 스피롤리나를 배양하는데 성공하였다. 생산된 스피롤리나의 단백질함량은 68.7%로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스피롤리나의 질적지표를 확고히 압도하였다.



생산된 제품을 놓고

준 최초의 식품으로서 고온, 알카리성호수에서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청람색의 빛합성미생물이다.

이렇듯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지고있는 스피롤리나를 대성경제협조사에서 연속적으로 대량배양해내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하는 공정을 확립하였을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영양식품들을 개발하고있다.

처음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수질이 좋고 환경오염이 없는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에 일정한 규모의 스피롤리나배양장을 꾸려놓고 중간시험배양을 진행한것은 주체95(2006)년부터였다.

당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스피롤리나의 대량배양과 그 가공기술을 독점하고 엄청난 리득을 보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스피롤리나배양은 물

조선속담 (민첩성)

- 소리없는 고양이 쥐잡듯
고양이가 소리없이 날쌔게 쥐를 잡아채듯이 말없이 숨씨있게 무슨 일을 해치우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 눈치(가) 빠르기는 도가집 강아지라
도가집 강아지는 사람단련을 많이 받아서 사람의 동정을 잘 살핀다는데로부터 눈치가 매우 빠른 사람을 룬으로 이르면 말.
- 참고: 도가집 - 옛날에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에 대해 의논을 하던 집.
- 삼동서 김 한장 먹듯
① 김 한장을 세 동서가 먹는다는 뜻으로 눈깜박할 사이에 먹어치움을 비겨 이르는 말.
② 무슨 일을 매우 날래게 해치우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 * *

스피롤리나를 대량배양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충분한 생산경험을 쌓은 그들은 만경대구역 건국동에 넓은 면적의 배양장을 건설하고 우리 나라 조건에서의 연속대량배양 및 공업적인 수확공정을 확립하였다.

그에 토대하여 그들은 스피롤리나가공품들을 만들기 위한 새 제품개발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여러해동안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스피롤리나알, 스피롤리나가루, 스피롤리나세수비누, 스피롤리나키크기영양알을 비롯한 2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스피롤리나의 영양성분을 보존하기 위해 건조하지 않고 그대로 가공하는 방법에 성공하여 스피롤리나단졸임, 스피롤리나영양사탕을 만들었으며 어렵다고 하던 100%스피롤리나분말에 의한 영양알약을 생산하고있다.

협조사에서는 수확한 스피롤리나를 등급별로



호평을 받고있는 제품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상식

건강에 좋은 햇빛쪼이기

햇빛은 피부를 튼튼하게 한다.
햇빛을 쬐이면 피부는 흑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햇빛속에 있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현상이다. 자외선은 살균작용과 항구루병작용을 한다.
자외선의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피부가 튼튼해지고 피가 잘 돌게 되며 입맛이 나고 신경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사람의 뼈를 튼튼하게 하자면 몸안에 칼시움이 충분히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비타민 D가 몸안에 필요한 량만큼 있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진다.

갈라 건강식품, 일반식료품, 화장품, 사료, 비료 등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고있다.

이곳 기술준비원 강윤희는 《우리는 스피롤리나의 대량배양 및 공업적인 수확공정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한다면 얼마든지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다는 배짱과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대성경제협조사에서는 인민들이 요구하는 질좋은 스피롤리나영양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현대적인 배양장을 건설하고있으며 새 제품개발도 적극 내밀고있다.



비타민 D는 음식물들을 통하여 보충되기도 하지만 주로는 자외선을 쬐이면 피부에서 합성된다.
그러므로 구루병, 뼈연화증, 뼈송소증, 폐결핵, 골절환자들이 햇빛을 쬐이면 좋은 효과를 본다.
일상생활에서 옷이라든가 생활용품을 햇빛에 소독하는것은 햇빛속의 자외선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작용이 매우 강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햇빛을 쬐이면 중추신경계통과 물질대사기능이 높아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 * *

탐구자의 모습



정종근박사

오늘 조국땅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에는 각종 방수재와 칠감, 마감건재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보장한 탐구자의 성실한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 인민과학자교수 박사인 평양정향기술합영회사 사장 정종근이다.

언제인가 그가 석수를 막을수 있는 방수재를 개발할 때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방수재로는 영구보존을 요구하는 건축물들에 대한 석수방지를 할수 없었다. 석수는 강한 알카리수로서 철판도 견디지 못하였으며 이 문제를 여러 단위들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연구에 달라붙은 그의

머리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석수방수재를 만들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실마리를 찾지 못해 달을 넘길 때에는 선박공학이 전문인 자기가 전공도 아닌 방수재연구

에서 성공할수 있겠는가고 망설여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 나라에서는 각종 칠감들을 연구하며 여러가지 마감건재들을 생산할수 있는 단위를 내오도록 하고 그를 책임일군으로 내세워주었다.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그는 이역땅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겨 성장해온 잇수 없는 나날들이 돌이켜졌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서해갑문건설의 운명과 관련된 가물막이공사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던 일이며 2만t급트도크설계를 맡아 완성하여 인민과학자로 되고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영광의 순간들...

소중한 그 모든것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건재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이 되였으나 그는 석수방수재에 대한 연구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로 석수방수재를 완성할 결심밑에 해당 부문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폭넓고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식의 방수재연구에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실험실은 곧 그의 침실이기도 하였다. 그는 밤잠을 몰랐다. 그와 같이 연구사업을 하던 과학자들도 그가 언제 쉬는지 알지 못하였다.

수십차례의 실험끝에 그는 방수성과 내열성,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무기질과 유기질성능을 나타내는 환경보호형방수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런이어 그는 반년도 못되는 기간에 고성능중합물세멘트복합방수칠감과 침투성돌오염방지제를 연구개발하여 건축물들에 도입하였다.

단위의 경영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정종근사장이지만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운것이라도 자기의 연구과제로 여기고 스스로 맡아나서군 하였다.

결코 재부나 명예를 바라서가 아니였다. 오직 자기의 연구사업성파가 부강조국건설에 보탬이 되면 그만이라는 애국의 마음을 지닌 그였던것이다. 하기에 흡음재와 흡음칠감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섰을 때에도 그는 주저없이 새로운 탐구의 길에 나섰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회사는 부착력과 방녹, 내수, 광택성이 좋은 진주광택칠감과 녹막이칠감, 지붕칠감, 바닥용 칠감 등을 개발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공장을 건설하여 각종 칠감과 무기질보온재, 경소마그네샤합판 등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았다.

국제친선전람관, 동평양대극

장, 옥류관, 국립연극극장, 양각도국제호텔, 룡라인민유원지, 미래과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에는 회사의 제품들이 광범히 리용되였다.

오늘 그의 말아들 정룡수도 여러 건재품들을 개발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있다.

정룡수는 말하였다.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탐구자가 되기 전에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오직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탐구의 길을 걸을 때 성공할수 있다는것이 아버지의 지론입니다.》

정종근사장은 오늘도 문명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더 많은 칠감들과 마감건재들을 연구완성하기 위해 패기와 정열에 넘쳐 탐구의 길을 걷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상 식

정월대보름날의 민속놀이

정월대보름은 설명절이후에 맞는 첫 명절로서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쇠오던 민속명절들중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정월대보름날(음력 1월 15일) 여러가지 재미있는 대중적인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기였다.

이날에 하는 민속놀이는 주로 연띠우기, 바람개비놀이, 팽이치기, 바줄당기기 등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의 흥미를 끈 놀이는 연띠우기였다.

초겨울부터 시작된 연띠우기는 정월대보름때에 이르러 대성황을 이루군 하였다.

그리고 정월대보름날에 어린이들이 즐겨 가지고는 놀이감은 팽이와 바람개비였다. 찬바람을 헤가르며 여러가지 형태의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달리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명절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바줄당기기는 추석날에 많이 하였지만 정월대보름날에도 크게 하였다.

정초에 어린이들의 경기로부

터 시작된 바줄당기기는 정월대보름날에 와서는 마을 대 마을, 지역대 지역의 어른들의 대중적인 경기로 진행되였다.

이밖에도 일부 지역들에서는 놋다리놀이, 다리밟이, 수레싸움놀이, 봉죽놀이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들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우리 인민들은 다른 명절과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날에도 유쾌하고 흥미있는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였다.

* * *

온천으로 유명한 고장

황해남도 삼천군 하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온천이다.

그만큼 예로부터 이 고장의 온천은 유명하였다. 그런데로부터 군의 지명도 이러한 온천이 세곳에서 나온다는 뜻에서 삼천이라 불리우고있다. 이러한 삼천군을 취재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전 이 고장을 찾았다.

온천으로 유명한 고장이어서인지 이곳으로 찾아오는 료양생들이 많았다.

읍지구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평양에서 왔다는 신희순녀성을 만나 그와 동행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 태생이었는데 해마다 한번은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을 만날겸, 온천욕도 할겸 고향에 온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읍 36인민반에서 사는 그의 어머니 황규선녀성을 만나보았다. 황규선녀성은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겨 지금껏 40년간 이곳에서 살

고있었다.

사는 재미가 어떠한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나라의 각별한 관심속에 아들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오고있다고 하면서 귀국할 당시 선천적질병으로 몇년 못산다고 하던 딸이 이곳 군인민병원과 달천영예군인료양소의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과 온천치료로 하여 병을 털었다고 감동깊이 이야기해주었다.

그들과 헤어진 우리는 온천을 리용할수 있게 꾸려진 은덕원으로 향하였다.

이곳 지배인 김정희의 말에 의하면 지심 100m 깊이에서 나오는 온천은 심장피줄계통질병과 소화기질병, 피부병 등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실지 이곳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도 지난 시기 여러가지 병을 앓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온천욕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부터는 병을 털어버리었다고 하였다.

80살을 가까이하고있는 읍 70인민반의 김관진로인만 보아도 청진에서 살 때에는 피부병이 몹시 심하였는데 이곳에 와서 살면서 온천의 덕으로 지금은 병을 깨끗이 고치였다.

자기 고장의 온천을 자랑으로 여기고있는 이곳 주민들은 우리에게 최근에 군에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은덕원뿐아니라 병원과 상점, 문화회관 등을 개건하고 영예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료양소들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있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그들의 말대로 읍지구의 중심에 있는 편의봉사시설들은 선편리성과 현대감이 결합되게 개건되고있었으며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등도 자기 고장의 특색을 살리고있었다.

우리는 읍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본 후 그 옛날 종달새가 온천물로 부러진 다리를 고쳤

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는 달천리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종달온천이 있는 이곳에는 영예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달천영예군인료양소가 자리잡고있었다. 3층으로 된 료양각과 종합치료장을 비롯한 료양치료시설이 갖추어져있는 이곳에서는 많은 료양생들이 온천욕치료, 덕수, 모래욕, 치료체육, 안마, 감탕치료 등을 받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것은 종달온천을 리용한 온천욕치료와 덕수였다. 료양소주변에는 숙식도 하고 온탕도 할수 있게 건설된 수십동의 살림집들이 있었는데 이곳도 료양생들이 즐겨 리용하는 곳이였다.

료양소일군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수천명의 료양생들이

찾아오는데 그중에는 담가에 실려오거나 지팡이를 짚고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지만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갈 때에는 제발로 료양소문을 나선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사는 리광성 역시 그러하였다.

하반신마비로 담가에 실려왔던 그였지만 그는 이곳 료양소의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과 온천치료의 효과로 30여일만에 일어나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만이 아닌 많은 료양생들이 이곳에서 온천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데 대해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는 이곳 의사, 간호원들의 손을 꼭 잡고 땅속에서 솟구쳐오르는 온천도 온천이지만 자기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치료해주는 보건일군들의 정성이 있어,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있어 자기들의 오늘의 삶의 기쁨도 있는것이라고 진정에 넘쳐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온천으로 유명한 삼천군, 인간사랑의 화원으로 전변된 이 고장에 대한 애착을 고이 간직한 료양생들의 마음을 읽으며 우리마저 가슴을 뜨겁게 적시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삼천군문화회관의 예술소조원들



황규선로인의 가정에서



달천영예군인 료양소에서





중국 료녕성 외방점시 염점향 염점촌 최봉선누이 앞

보고싶은 누님에게

누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친척방문으로 중국에 가 누님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지도 이제 1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보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한창나이때보다 더 빨리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봉이 어제일처럼 눈에 삼삼한데 벌써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앓고있던 심장병이 도지는 않았는지 몹시 걱정됩니다. 조카들인 춘화와 춘엽, 춘영, 춘용이도 별고없이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 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맏아들 영학이는 읍사진관 책임자로 일하고있는데 아들네 사진관이 봉사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평이 좋습니다. 어느 한 단위를 책임지고 일하는 맏며느리도 집단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속에서도 나를 극진히 돌봐주고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우리 가정에서 제일 큰일을 하는 자식은 군인민위원회에서 상업부장사업을 하고있는 둘째 영민인가싶습니다. 늘 봐야 군내주민들의 생활걱정을 하며 그들에게 생활필수품 한가지라도 더 공급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는 둘째를 보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 자식이 하는 일

이어서보다 조국에서 일꾼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가는 모습이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누님, 군려관상점 책임자로 일하고있는 맏딸 은화도 그렇지만 삼천식당 책임자로 일하고있는 막내딸 금화 역시 봉사단위 일꾼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고있습니다. 특히 막내딸이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식당을 개건하고있는데 얼마나 공사속도가 빠른지 얼마 안있어 멋들어지게 일떠설것 같습니다.

나도 막내딸의 일손을 돕느라 건설장에 나가 살다싶이 합니다. 아마 누님이 있었으면 더 힘껏 도와주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멀리 헤어져있는 형제들과 친척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들며 떠난고향에 무엇인가 적은 힘이나마 기여해보려고 애써온 누님이

아닙니까.

나는 누님의 마음속에 간직된 그 소중한것이 단순히 나로서자란 고향과 한피줄을 이은 형제, 친척들에 대한 그리움에 앞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님이 지닌 그 마음이 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평범한 자기들을 공부시켜주고 일꾼으로 내세워준 조국의 고마움을

자식들이 보다 깊이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님, 저의 이야기는 끝간데 없는 하늘과 같아 백밤을 지샌들 끝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이만 끝맺으려 하니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에 류의해 주십시오.

그럼 온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펜을 놓겠습니다.

황해남도 삼천군 삼천읍 273인민반 최창구동생 올림

단 상

정성을 기울이는 마음

사진의 주인공들은 중국 료녕성 심양시 황거구 회화남가에서 살고있는 백승길, 김정애동포부부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그들의 마음인양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광명성절을 맞으며 아름답게 피었다.

붉게 타는 태양인듯 활짝 피여난 김정일화,

지구상에는 이름난 꽃들도 많고 그 꽃들이 담고있는 의미도 많다. 하지만 김정일화처럼 인류의 심장을 매혹시키며 세계 제일 명화로 칭송받는 꽃은 없을것이다.

김정일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충성과 열정의 상징》으로 국제화초전시회에서 만사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여러차례 특별상과 금상을 수여받았다.

수많은 꽃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우며 열정을 상징하듯 눈부시게 밝은 붉은색을 띠는 김정일화,



김정일화가 그렇듯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것은 꽃의 아름다움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세계의 명인으로 칭송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발현인 것이다.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라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며 세기를 이어 이 지구상 어디서나 활짝 피어나 최고의 명화로 그 이

름을 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 아닐수 없다.

만민의 열렬한 흠모심과 지성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져있는 세계적인 꽃 김정일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위인칭송의 열기가 그대로 자양분이 되어 온 누리에 더욱더 만발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 식

천공발파기술의 발명국

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일찌기 화약을 제조하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널리 리용하였다.

14세기 최무선에 의해 화약제조 방법을 발견한 우리 민족은 광물채취에서 화약에 의한 천공발파기술도 적극 활용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헌인 《선조실록》에는 1606년 9월 김경

림이라는 사람이 왕(선조)에게 경기도에서 진행하고있는 은광석채취작업의 능률이 매우 낮는데 대해 보고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제기하였다고 서술되어있다.

그 대책이 바로 대거광폭 즉 광맥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채워 터치는 방법으로 광석을 대량적으로 캐내는것이였다.

현재 세계 주요과학기술발명일

람표에는 광석채취에 화약을 채워 터치는 천공발파방법의 발명년도가 1627년이고 발명자는 오스트리아의 광산기사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김경림의 제기는 1606년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천공발파방법을 도입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

불멸의 명필체에서 출중한 위인상을 보다 (3)

금과 옥이 담겨진 심오한 명필체

필체에는 정치가의 지향이 비껴있고 명필의 진가는 그 뜻으로 하여 더욱 빛나게 된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방명록에 새기신 글발은 몇개의 문구밖에 되지 않지만 수천수만자의 글에도 담을수 없는 심오한 철리가 함축되어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숭엄함을 자아낸다.

장장 반세기가 넘는 분단력사의 경험과 교훈을 깨우쳐주고 북과 남이 나아갈 공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쾌히 밝히고있어 진가의 무게를 더해주는 그분의 명필체이다.

그래서 그분의 필체를 보면 서체의 일반적기법과 필치의 황홀함을 초월하는 깊은 뜻과 가치를 지니고 민족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환히 안겨온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최고령도자님의

이 글발에서는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으로 서로 오해하고 불신해온 비정상적인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 그분의 확고한 결심과 열렬한 호소가 메아리치고있다.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분렬로 인한 비극과 고통을 가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도 적지 않게 진행되었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좋은 합의 문건들도 많이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합의들은 쓰라린 진통과 좌절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겨레의 실망은 컸고 북남사이의 간격은 더욱 멀어졌다.

새 세기에 들어와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환희와 기쁨을 안겨준 두차례의 력사적인 수뇌회담과 기념비적인 6. 15, 10. 4선언들이 당치 않은 《잃어버린 10년》을 떠들어낸 남조선보수 《정권》에

의해 가슴아픈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던가.

이러한 악순환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투철한 결심, 이제부터는 북과 남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민족의 대의를 위해 새 출발을 하여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그분의 글발에 맥동치고 있는것이다.

《평화의 시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이 글발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강토에서 살아가려는 겨레의 열망과 지향이 또 얼마나 절절하게 울리고있는것인가.

서로 총구를 맞대고 대결해온 적대의 력사, 전쟁의 먹구름이 떠도는 침예한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하고 온 겨레에게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가져주시려는 투철한 평화의지가 그분의 필체에 력력히 어리어있다.

분렬의 비극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헤아릴수 없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더 간절한 소망은 없다.

그러나 평화의 길을 찾기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였고 북과 남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며 온 민족의 파멸과 조선반도의 불행을 초래할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천만한 계선을 무수히 넘나들기도 하였다.

평화달성을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온 겨레에게 북과 남이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의 출로를 열어갈수 있다는것을 전민족적인 공감과 확신으로 전환시켜주시신분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다.

그분의 평화의지는 조선반도에서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판문점선언의 조항들에 구현되어 삼천리강토에 평화의 서광을 밝게 비쳐주고있다.

《력사의 출발점에서》,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있는 글발이다.

바로 여기에는 북남 두 수뇌분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새로운 력정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출발이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분렬과 통일열망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시작되었음을 내외에 알리는 통일령장의 선언이다.

판문점상봉에서 마련된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여 온 겨레에게 민족의 창창한 래일,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시려는 그분의 굳센 각오와 결심이 어려있는 불멸의 명체이다.

재개.나.동포 고진호
(2018년 7월)

인상기

깊은 감동을 안겨준 공연



김영옥: 나는 이번에 영자언니와 함께 조국을 방문하였다.

조국방문의 나날 우리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는 공연이어서 그런지 공연은 처음부터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이전에도 조국에서 진행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았지만 이번의 공연은 그때와 또 다른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었다.

여러가지 조명이라든가 무인기의 출현 등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많이 도입되었고 하늘, 땅, 배경대 등에서 립체적으로 펼쳐지는 예술의 세계가 자연히 사람들을 심오한 극적세계에 빠져들게 하였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무아경에 휩싸이였으며 한 장면, 한 장면이 끝날 때면 열렬한 박수로 화답해주었다.

김영자: 그뿐이 아니다.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것은 출연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학생들이거나 근로청년들이라는 사실이었다.

배경대에 앉은 고급중학교 학생만도 근 2만명이 나 된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배경대는 흉내도 낼수 없을것이다.

공연을 보면서 나와 동생은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조국의 위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조국 고유의 일심단결이었다.

단결력이 강한 조국을 위해 우리는 어제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이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김영자, 김영옥

어느 나라에서도 모방할수 없다

리 외집: 이번에 나는 안해인 나 리따와 함께 고국을 방문하였다. 내가 6년전에 왔을 때보다 고국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그 변화가 너무도 빠르고 많아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 가나 건축미를 자랑하는 새 거리들이 일떠서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하나같이 밝고 단정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시적으로 밝은 웃음이 실려있었다.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한것은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었다.

나는 여러 나라들에 가보았어도 아직까지 이런 공연을 본적이 없다.

나 리따: 옳은 말이다.

고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데다가 이런 희한한 공연까지 본 나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작품이 안고있는 사상적내용도 훌륭하고 그 예술적형상도 손색이 없다.

수만명이 하나와 같이 움직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시로 변하는 장면에 맞게 컴퓨터와도 같이 정확하게 형상하기란 조련치 않을것이다. 하지만 바닥에서 여러가지 형상을 해내는



출연자들이나 배경대에서 갖가지 조화를 부리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조명을 맡은 사람들모두가 마음을 맞춰 공연을 진행하였다. 정말 신기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것은 모방할수 없다.

공연에 대하여 훌륭하다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이런 고국이 우리에게 있다는것은 더없는 자랑이다. 나는 앞으로 고국을 위해 적으나마 일을 찾아하며 자식들이 고국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

로씨야 우쭈리스크시 리 외집, 나 리따



몽치면 큰 힘

《싸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쉽지만 아름답리나무는 꺾지 못하리》

이 명구는 고국에서 창작된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나오는 노래의 한구절이다.

혁명가극 《피바다》에 대하여 설명을 붙인다면 지난 세기 전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땅을 다시 찾기 위한 항일전을 벌리시는 나날에 몸소 이 가극을 창작하시어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려 일으키시었다.

언제인가 나는 고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노래를 배웠는데 부를수록 참으로 뜻이 깊다.

가극에서도 형상되었다싶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만 하여도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불우한 운명을 타고난것을 천명으로 여기었던 나의 아버지도 일찌기 부모를 따라 살기 좋은 고향인 고국의 평안북도 룡천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향을 그리며 눈물짓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온 나는 비록 이역땅에서 살아도 조선사람들의 마음만은 언제나

나 고향과 고국에 두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고향을 그리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모두 합친다면 고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 무엇인가 한몫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기업이 점차 활성화되어 여유가 생기자 이역땅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의 리익과 권리, 생활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나가기 위해 마음을 쓰게 되었다.

2002년에 룡녕성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나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이 나날 나는 나를 내세워준 중국에 사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군중에 대한 봉사정신을 지니고 사업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우리 협회에서는 심양조선족로인협회와 같은 단위들은 물론 자식의 학비며 가족의 치료비를 충당 못하는 조선족가정들의 생활도 알아보고 제때에 도움을 주고있다.

나는 이에 만족할수 없었다.

지난해 9월말 민속명절 추석을 계기로 우리는 심양시에서 연 3일간에 걸쳐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의 주최로 성대한 조선민속명절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미술전람회와 운동회, 노래춤자랑무대 등 전국에서 선발되어온 1만여명의 조선동포들이 모여 그야말로 성대한 축제를 펼치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기간 남녀로소가 아름다운 민족옷을 펼쳐

입고 조선민요를 부르며 우아한 룡동의 민족춤을 추었으며 그네뛰기, 윷놀이, 장기, 바둑, 씨름, 바줄당기기 등 민족체육으로 흥을 돋구었다.

제일 자랑스럽게 안겨오는것은 그 행사에 참가한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우리 말을 하는 것이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해외교포들이 살고있지만 중국에 사는 조선사람들처럼 대대손손 자기의 민족어를 잊지 않고 민족성을 깨끗이 이어가는 민족이 또 있을가싶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조선동포 한가정이 화목하면 부모형제모두가 화목하게 될것이고 또 이웃들끼리 화목하게 될것이며 그것이 나아가 한 동네전체가 서로 도우며 사이 좋게 지낸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해결되어나갈것이다.

중국에 살고있는 수백만의 조선동포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하나로 몽치면은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의 마음과 뜻이 고국과 민족의 통일과 부흥발전을 위하여 하나로 몽치면은 그 힘은 반드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그렇다. 몽치면 강자가 되고 흠어지면 패자가 된다.

우리 고국이 바로 그 몽치면 힘, 그 단결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하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지 않는가.

나는 앞으로 우리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가 고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짚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길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표성룡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미술 (2)

조선봉건왕조시기 공예는 고려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공예품의 대부분은 량반통치배들의 사치한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것들이었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만든 공예가들의 창조적지혜와 슬기가 반영되었다.

이때 창작된 공예는 그전시기 감상용공예품이 위주로 되어있던데서 벗어나 실용성을 위주로 발전하였다.

공예발전에서 도자기와 돛자리공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도자기는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예술적형상이 소박한것이 특징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전시기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던 그릇들도 도자기로 만들어 리용하였는데 같은 종류의 그릇이라도 용도에 따라 큰것, 작은것, 깊은것과 얇은것, 둥근것과 모난것, 뚜껑이 있는것과 없는것 등 그 형태가 수없이 많았다. 그릇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소박하고 선이 굵직하며 풍부한 량감을 주는것이 특징적이었다. 도자기의 무늬소재는 사군자(매화, 란초, 국화, 참대), 십장생을 비롯한 꽃과 새, 풍경, 행복을 나타내는 글자 등이었고 그릇의 용도와 형태에 맞게 소박하고 간결하게 그렸다.

조선봉건왕조자기는 색깔과 장식수법에 따라 백자기, 분장자기, 색자기로 나뉘어진다. 임진조국전쟁 이전시기에는 분장계통의 자기와 백자기가 주류를 이루다가 그 이후시기에는 분장자기가 자취를 감추고 백자기가 대표적인 자기로 되었다.

특히 백자기는 조선봉건왕조자기를 대표할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예술적품위가 높은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조선봉건왕조백자기는 고려청자기의 형태가 곡선적인데 비하여 직선적이고 아래쪽이 평퍼짐해져서 안정감과 실용성이 더해진것이 특징적이었다. 조선봉건왕조백자기는 순백자기로부터 점차 청화자기, 석간주백자기, 진홍백자기로 발전하였다. 특히 흰색칠물밑에 산화코발트색감으로 푸른색무늬를 놓아 장식한 청화백자기는 18세기에 들어와 순백자기를 대신하여 대대적으로 생산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돛자리는 종류가 다양할뿐 아니라 여러가지 무늬를 새긴것으로 하여 정

교하고 치밀하였으며 예술성이 높으면서도 실용성이 있었다. 꽃무늬를 장식하여 만든 화문석(꽃돛자리)은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높았다.

이 시기 나무공예와 종이공예가 특수하게 발전하였다. 실용성과 예술성이 높은 수준에서 결합된 나무공예품은 라전공예, 화각공예 등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각 지방의 특성이 짙게 나타나는것이 특징이었다. 뿐만아니라 질 좋은 종이 다량 생산되는데 맞게 접기와 붙이기, 꼬기, 엮기 등 여러가지 수법을 리용한 종이공예품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생활에 리용되었다.

이밖에도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염직공예, 가죽공예, 초물공예, 금속공예, 돌공예 등 여러 부문의 공예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 조각은 다른 미술형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건물들의 장식조각과 단청과 같은 건축장식미술이 발전하였다.

특히 앞선 시기에 비하여 건축장식조각이 특별히 발전하였다.

건축장식조각에는 건물의 내부, 외부장식조각, 문장식조각, 절간의 불단장식조각이 많았다. 지금 남아있는 건축장식조각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궁전의 계단장식조각, 돌란간장식조각, 돌다리장식조각, 벽면장식조각, 문장식조각, 지붕장식조각 등이며 거기에는 돌집승과 봉황, 꽃무늬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부각장식조각들이 새겨져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단청은 고려시기의 단청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변화발전하면서 민족의 고유한 건축장식으로 완성되고 체계화되었다.

16세기까지 단청은 색조화와 장식구성으로 조화롭고 은은한 느낌을 주던 고려말기 단청과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17세기이후에는 장식무늬구성과 형식이 다양해지고 색채가 한결 화려해져 조선단청의 전형이 확립되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수천년을 두고 발전하여온 민족미술의 전통을 고수하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보다 발전시킴으로써 중세미술사를 보다 풍부히 하고 동방미술을 꽃피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조희남

동명왕을 받은 부분노

부분노는 고구려의 장수이며 국가성립직후 평역을 확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부분노는 고주몽(동명왕)을 도와 그가 파루부의 우두머리로, 고구려국가의 창건자로 되는것을 적극 도왔으며 건국이 후에는 주변에 있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언제나 용맹을 떨쳐 큰 공을 세웠다.

그는 B. C. 272년(동명왕 6년)에 오이와 함께 태백산 동남쪽에 있던 행인국을 치고 그 지역을 통합함으로써 고구려가 동남쪽으로 령토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고구려

에 의한 소국통합과정을 촉진시켰다.

B. C. 249년 고구려의 서북방에 살고있던 선비족이 자주 고구려를 침범하자 그는 선비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혜로써 이길 계책을 왕에게 제기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정예군사들을 거느리고 선비국 수도성주변에 매복하고 국왕은 일부 군사들로 정면으로 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이 적은것을 본 선비족이 성문을 열고 출격하자 그는 매복했던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문으로 돌입하여 성을 순식간에 차지하였다.

그리고는 국왕의 군사와 함

께 성안으로 퇴각해오는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그의 묘한 계책으로 하여 나라의 안전에 위협을 주던 선비족은 제압되고 고구려에 종속되었으며 서북지방의 정세를 안정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공로로 하여 5세기초 동명왕릉을 평양으로 옮겨올 때 그의 묘도 동명왕릉주변의 룡산리 9호무덤에 이장된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동명왕릉앞에는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위업을 받든 그의 모습이 돌조각상으로 세워져있다.

* * *

조국의 각 토 특산물들 (2)

평양의 특산 - 평양밤

평양의 특산물중에는 평양밤도 있다. 예로부터 평양사람들은 자기 고장의 자랑인 밤나무를 많이 심어 가꾸어왔으며 해마다 따들인 밤을 맛보는것을 풍습으로 여겨왔다. 평양지방에서는 늦가을과 겨울철이면 여기저기에서 밤을 구워파는것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었으며 타고장에서 온 사람들도 평양군밤을 사가지고 돌아가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있었다.

평양밤이 어찌나 유명하였던지 바다 건너 일본의 도쿄, 오사카 등의 여러 도시들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한다.

평양밤이 특산물로 된것은 다른 밤들과 달리 달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평양밤이 알은 작으나 다른 밤들에 비하여 껍질이 얇고 잘 벗겨지므로 식생활에 리용하기 편리한데도 있었다.

평양사람들은 평양밤으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독특한 맛과 약리적 가치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약밥과 밤밥, 다식, 밤떡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이



그 실례로 된다. 평양밤은 날것으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으며 삶은 밤을 말리워 가루내어 약용, 식용으로 쓰기도 한다.

예로부터 소문난 평양군밤은 오늘에도 그대로 이어져 늦가을부터 한겨울철이면 평양의 거리거리들에 있는 매대들에서 밤을 구워파는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놓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승길

사화

방패에 새긴 시

1217년 10월 압록강기슭에 자리잡은 린주(의주)고을의 압림평이라는 넓은 들판에서 고려군과 오랑캐군이 서로 상대를 노려보며 맞진을 치고있었다.

고려군의 서북면병마사인 조충의 밑에는 김종룡이라는 젊은 군사가 있었다.

김종룡은 압록강을 등지고 오만스페 맞진을 치고있는 오랑캐군을 분노의 눈길로 쏘아보며 장검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왼손에 쥐고있는 방패를 굽어보았다.

더 많은 적을 무찌를 욕망으로 방패에다 남달리 시를 지어 새긴 노릇이 그만 문장에 밝은 병마사의 눈에 들어 전령이 된 그였다.

그 시에는 나라의 근심은 신

하의 근심이고 아버지의 걱정은 자식의 걱정이며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라에 보답하면 충효를 다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입속으로 방패에 새겨넣은 시를 읊던 중룡은 조충을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키웠다.

지난해 가을이였다.

주변나라의 어느 한 종족이 수만대군으로 고려의 지경을 침범했다는 급보를 받은 조정에서는 급히 서북면군을 재편성하라는 령을 내렸다. 하여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수천명의 군사들이 서경에서 조충의 사열을 받게 되었다.

조충이 중룡앞에서 멈춰서며 무엇을 하던 젊은이인가고 물었

다. 이때 한 군교가 국자감(후에 성군관)생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나라밖에는 전란이 일어나면 사내들은 15살부터 종군하게 되어있지만 국자감생만은 례외로 되고있었다.

조충은 깜짝 놀랐다. 중룡은 자기를 돌려보낼가봐 속이 한줌만 해졌다.

조충은 중룡의 손에 들린 방패를 굽어보며 방패에 쓴 시는 누가 지었는가고 물었다.

그의 래력을 알고있는 군교가 신바람이 난듯 그 시도 중룡이 지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감동의 빛으로 물들어진 얼굴로 조충은 그 시에 어떤 뜻이 담겨져있는가고 물었다.

원래 징발령장을 받은것은 그

의 아버지였다. 병들어 앓고있던 그의 아버지는 전장에 나가지 못하는것을 매우 안타까와하였다. 그 모습을 본 중룡은 아버지에게 아버님의 근심이자 자식의 근심이고 침략자를 쳐부시려는 아버님의 마음이자 자식의 마음일진대 국자감생이라고 해서 어찌 전장에 나갈수 없겠는가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찍힌 징발령장을 가지고 국자감을 맡아보는 대사성을 찾아가 군사로 나갈수 있도록 승낙해줄것을 간청하였으며 자기의 결심을 담은 시를 지었다.

시에 깃든 사연을 들은 조충은 못내 감탄해하며 그를 자기의 전령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전장에는 나왔지만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중룡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북

소리가 나며 적아간 두 장수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아군장수가 물러서는척 하면서 적들을 뒤에 달고 아군의 포위진까지 달려왔다. 때를 기다리던 아군은 조충 병마사의 지휘하에 적들에게 활과 쇠뇌를 쏘았다. 하여 적진은 삽시에 수라장이 되었다.

노도와 같이 맞받아치는 고려군의 드센 공격에 완전히 넋을 잃은 적군은 황급히 쫓무니를 빼었다. 그러나 적들은 대오를 다시 수습하고 달려들었다.

조충은 적군의 기치를 알아올 생각을 하고있었다. 기치만 빼앗아온다면 수적우세를 믿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적의 기세를 꺾어놓고 아군의 사기를 부쩍 돋굴수 있을것이였다.

중룡은 자진해서 그 일을 맡아나섰다. 그의 결심이 확고한것을 알게 된 조충은 숨씨를 보

이라고 그를 떠밀어주었다.

중룡은 기만전술을 써가며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기를 빼앗고 야말았다.

적의 기마군사들이 중룡의 뒤를 별떼처럼 뒤쫓았지만 때는 늦었다.

이때 조충병마사는 익측에 숨겨두었던 고려군의 후군을 출동시켰다.

적들은 혼비백산했으며 겨우 몇놈만 살아서 압록강에 뛰어들었으나 사품치는 물결에 그마저 수장되고말았다.

조충은 중룡을 부둥켜안았다. 싸움이 끝난 후 병마사는 입속으로 중룡의 방패에 새겨진 시를 다시한번 뇌이며 그 어떤 외적도 이 땅을 범접할수 없게 할 출중한 장수들을 키우는 일에 전심하겠다고 결의다졌다.

* * *

건강식품-콩나물 (2)

동포여러분, 우리는 지난 호에 콩나물기르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때 약속한대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콩나물음식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콩나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수 있는 음식에는 밥과 국, 김치, 나물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첫손가락에 꼽는것이 콩나물국입니다.

저는 콩나물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세대주를 위해 자주 콩나물국을 끓이곤 하는 까닭에 구수하고 맛있게 끓이는 방법만은 터득하였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콩나물의 뿌리를 다듬은 다음 깨끗이 씻어 물기를 짜줍니다. 단 남비에 기름을 두고 콩나물을 볶습니다. 콩이 약간 익으면 소금을 두고 뚜껑을 덮은 다음 콩비린내가 나지 않을 때까지 익힙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콩나물을 볶을 때에 소금을 먼저 넣으면 콩이 푹 익지 않으므로 반쯤 익었을 때 두는것이 좋습니다. 콩나물이 다 익으

면 물을 붓고 적당한 량의 된장(요구에 따라 간장이나 소금으로 끓일수도 있습니다.)을 골고루 풀어넣고 다시 끓입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간을 맞춘 후 여기에 파, 마늘, 고추가루, 맛내기, 참깨를 쳐서 국그릇에 담아냅니다.

콩나물국은 술의 취기를 깨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성주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끓이는 방법은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콩나물, 채친 무우와 함께 소고기를 넣으면 숙아탕이라고 하고 명태를 넣은것은 삼태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들도 모두 콩나물이 음식감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리용되기때문에 해정에 좋을뿐아니라 그 맛 또한 독특한것입니다.

콩나물음식에는 다음으로 콩나물이라는 재료와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우는것들도 있습니다.

끓는 물에서 데쳐낸 콩나물에 간장, 참기름, 다진 파와 마늘, 실고추와 약간의 식초를 두고 골고루 무친 음식도 콩나물이고 해정국을 끓이는것처럼 콩

나물을 볶은 후 간장, 다진 마늘, 채친 파, 참기름, 참깨, 실고추를 넣고 다시 살짝 볶아낸 음식도 콩나물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비롯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먼저 소개한 콩나물을 숙아채, 후에 소개한 콩나물은 볶음콩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원하고 쫄면 콩나물김치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나물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음식감으로 콩나물 1.5kg, 미나리 0.5kg, 소금 30g, 파 20g, 마늘 10g, 생강 10g, 고추가루 50g을 준비합니다.

콩나물은 깨끗이 다듬어 0.2% 소금물에서 데쳐내고 미나리는 줄거리만 다듬어 길이 3cm정도로 썰어놓습니다. 채친 파와 다진 마늘, 간장, 고추가루로 양념장을 만들어 데쳐낸 콩나물과 미나리를 함께 무칩니다. 이것을 단지에 차곡차곡 넣고 소금으로 간을 들여 만든 김치물을 부어 하루밤 익힙니다.

김치의 공업화가 실현된 조국의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되

콩나물국



콩나물김치



콩나물밥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5)

- 녜변철웅성 -

녕변철웅성은 평안북도 녜변군 읍을 둘러싼 돌성으로서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중에서 약산성과 본성은 고구려시기에 쌓았고 신성과 북성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쌓았습니다.

성벽의 둘레는 대략 본성이 14km, 약산성이 약 1km, 신성이 약 3km, 북성이 약 2km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쌓은 방법을 보면 약산성의 동, 서, 북세면은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고 남쪽의 일부 구간에만 성벽을 쌓았습니다.

본성은 산봉우리와 룡선부분의 바깥면에는 외면쌓기방법으로, 골짜기를 건너서는데와 성문 좌우

부분에는 량면쌓기방법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약산성과 본성의 성벽은 다듬은 성돌을 벽돌쌓듯 정연하게 쌓아올렸습니다.

신성과 북성의 성벽은 량면쌓기방법으로 크기가 고르지 않은 돌들을 밀에 자갈을 곁여가면서 쌓았으며 성벽의 높이는 6~7m입니다.

약산성과 본성의 성벽 윗부분은 전루행동에 편리하게 성안의 지면에 맞추어 평평하게 만들고 성벽을 따라가면서 성가퀴를 돌렸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구멍을 냈습니다.

본성에는 동, 서, 남, 북 네면에 문을 냈습니다. 현재는 남문만 남았는데 2층으로 된 아름답고 웅장한 문루가 옛 모습을 자랑하듯 서있습니다.

남산에는 남장대, 약산성에는 서장대(약산동대), 진망산에는 북장대, 모란봉에는 동장대 등 4개의 장대를 두고 망루를 세워 적을 감시하였습니다.

철웅성에는 북방에서 쳐들어온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친 투쟁이야기가 수많은 것 들어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슬기와 반침략투쟁 력사가 어려있는 녜변철웅성은 성곽연구에도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재부로 됩니다.

* * *



고있는 콩나물김치는 고추가루를 넣지 않아 콩나물대가리의 노란색과 노르끄레하면서도 맑은 김치국물이 어울려 상큼한 맛을 더해주고있습니다.

콩나물로는 부식물뿐아니라 콩나물밥과 같은 주식물도 만들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한번 전하며 그 마음이 해외의 여러 지역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가닿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최원주

유모아

아픈것은 왼쪽다리

한 어린이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왼쪽다리가 부러졌다. 간호원이 키브스를 하는 외과치료를 앞두고 여러차레 타일렀다.

《아파도 참아야 한다.》

그제서야 어린이는 겨우 오른쪽다리를 내밀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걸

리도록 치료를 했는데 신

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자

간호원이 칭찬하였다.

간호원: 《넌 참 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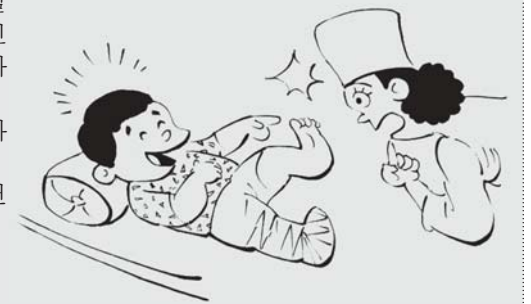
구나.》

영남이: 《정말 아픈건

왼쪽다리인데요 뭐.》

간호원: 《?!》

* * *





집선봉의 가을



외금강의 상팔담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2)

- 금강산 -

1만 2천봉우리들로 이루어진 금강산은 조선동해안의 중부, 태백산줄기의 북부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에 자리잡고있으며 남북길이 60km, 동서길이 40km, 면적 530km²의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은 어디 가나 다 절승 경개이지만 그중에서도 금강산은 특출하게 뛰어난 명승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금강산은 크게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그것을 다시 수십개의 구역과 동(계, 봉)으로 나눈다.

외금강은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뻗은 봉우리들과 동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해금강과의 사이를 포괄하는 명승지이다.

외금강에는 기세 차고 웅장한 산악미를 보여주는 관음련봉, 세존봉, 채하봉, 집선봉 등 수많은 봉우리들과 천태만상의 기묘한 기암괴석, 구룡연계곡과 한하계 등 이름난 계곡들, 거기에 크고 작은 폭포와 담소들이 한데 어울려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펼쳐보이고있다.

외금강은 지역적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온정구역, 만물상구역, 구룡연구역 등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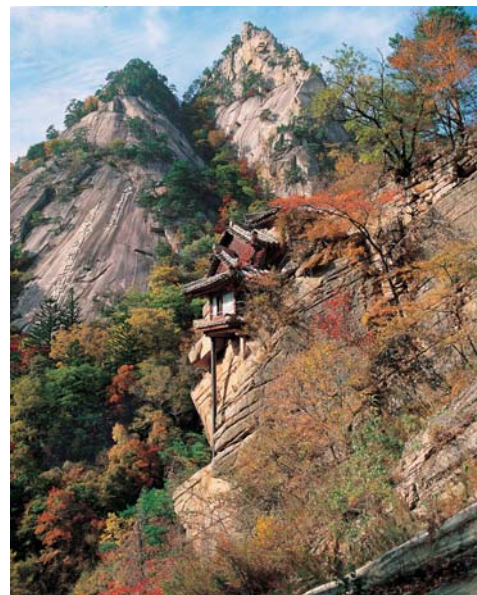
내금강은 금강산의 서부지역에 있는 명승지로서 옥녀봉, 상등봉, 온정령 그리고 월출봉, 일출봉, 차일봉, 백마봉, 국사봉 등 중앙련봉의 서쪽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 단풍리 등을 포괄한다.

수많은 폭포들과 소들이 짙은 록음, 기암절벽들과 조화되어 골마다 천하절승을 이루고있는 내금강은 깊숙하고 그윽하며 수려한 계곡미로 이름이 높다.

내금강은 그 지역적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만천구역, 만폭구역, 백운대구역 등으로 나눈다.

내금강의 보덕암



해금강은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영랑호와 감호, 화진포까지 외금강의 동쪽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와 해안 및 바다절경을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통천군의 총석정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해금강은 크게 삼일포구역, 해금강구역으로 나눈다.

이렇듯 금강산은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고 자연미가 다양하며 지역마다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불리우는 이름 또한 이채롭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온갖 꽃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봄계절에는 가장 빛나고

구룡폭포



아름다운 보석에 비기여 《금강산》, 봉우리와 층암절벽을 감도는 흰구름과 울창한 록음, 갖가지 아름다운 새소리와 폭포소리 요란한 여름에는 《봉래산》, 온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불타고 벽계수 흐르는 가을에는 《풍악산》, 바람이 불고 온 산이 눈꽃과 얼음기둥으로 덮여 특이한 경치를 이루는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불려왔다.

오늘 세계적인 관광지의 하나로 훌륭히 꾸려진 이곳으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없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해금강의 해금강문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역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날을 따라 고조되고 대화와 협상, 긴장완화와 평화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10. 4선언발표 11돛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전민족적인 대회합으로 성대히 치르어졌으며 북남고위급회담도 진행되어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이 진지하게 협의되고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북남장령급군사회담에서 북과 남은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부속군사합의서의 첫 단계실행정형을 종합적으로 점검총화하였으며 다음단계리행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북남체육분과회담들에서도 북과 남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협의되고 공동보도문들을 채택하였다.

그런가 하면 유서깊은 평양의 태권도전당에서는 국제태권도련맹시범단과 《세계태권도》시범단의 합동시범출연이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맹의 상징인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하고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켰으며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북남민화협단체들의 공동행사, 금강산관광시작 20돛기념 북남공동행사가 진행되고 행사들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여 평화번영의 래일을 앞당겨올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북과 남의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두고 마뜩지 않게 바라보며 이리저리 혼시질하고 로골적으로 간섭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계속되었지만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통일운동단체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립장을 표시하면서 그의 리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서명운동 등 각종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삼천리강토에 펼쳐지고있는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은 열렬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기적적인 현실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려는 립장을 천명하신 그이이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침예해지고있던 시기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지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애국애족의 용단을 내리시였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 나가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따라 파격적인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 대결과 적대의 악화일로를 걸던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따스한 봄기운처럼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높아지고있던 지난해 3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을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 나가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의 결심과 의지는 드림이 없으시였다.

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였고 4. 27판문점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9일만에 또다시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어 수십년 세월 얼어붙었던 북남대결의 동토대를 녹이였다.

그후 9월에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감한 결단과 특출한 령도실력에 의해 우리 조국은 희망과 활력에 넘쳐 평화번영의 미래, 자주통일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슬기

파멸을 재촉하는 반역당

지금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여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겨레의 지향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정당들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력사적인 대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전환점》,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을 활짝 열어제끼는 선언》 등으로 지지환영하면서 이 선언들의 《국회》비준동의와 그 리행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패거리들만은 시대의 변화와 민심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반대해나서고있다.

보수패당은 《국회》에 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이 제출되자 《위험한 도박》이라느니, 미국과의

《동맹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면서 법안처리를 전면거부하였다.

그런가 하면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하여서도 저들의 반통일적인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기 전부터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해가면서 대결기운을 극구 고취해온 이 패거리들은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다짜고짜 《북의 립장만 받아적은 선언》이라느니, 《공허한 선언》이라느니 하며 악의에 차서 헐뜯어댔다. 지어 보수패당은 유엔 《제재결의》에 저촉된다는니, 《절대수용불가능》이라느니 하고 고아댔는가 하면 나중에는 《재검토》망발까지 내뱉으며 그 무슨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라는것까지 조작해냈다.

그야말로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거세찬 격류에 밀려난 반통일대결광신자들의 최후발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실 민심의 버림을 받아 이제는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되어버린 이 패거리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늦게나마 대세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것이 추한 목숨이라도 건지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에서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계속 민심의 요구를 거역해나선다면 더이상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을것이라는 경고가 울려나오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되고 세살적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다 극악하게 반통일적인 악습을 드러내며 동족대결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 하지만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고 민족을 등진 반역무리들이 아무리 쏠라닥질하며 대결책동에 열을 올려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날을 맞이해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의 지를 막을수 없다.

민족의 력사는 민심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이 어떻게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지금처럼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을 계속 부리다가는 영영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정치난쟁이의 고약한 심보

오늘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긴장완화와 평화를 추동하는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있으며 각측의 노력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배치되게 유독 바다 건너 일본반동들만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싱가포르를 행각한 일본집권자가 동남아시아의 일부 수뇌자들에게 《랍치문제》해결에 대한 협력을 청탁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을 행각한 미국부대통령 펜스에게 《랍치문제》해결에 협조해달라고 애걸하고는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문제에서의 일미간의 긴밀한 협조를 확인하였다고 력설하였다.

심보고약한 일본반동들의 대결적인 악습은 결코 어제오늘에 생겨난것이 아니다.

력대 조선반도에서 획기적인 사변들이 도래할 때마다 시샘을 하며 악의에 차서 험뜯군 한것이 일본반동들이다.

지난해에만도 조선반도에서 극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나자 일본반동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며 《북조선의 미소외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제재강화를 한시도 늦출수 없다.》느니 하며 구걸외교에 매달렸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항공《자위대》전투기들과 미공군의 《B-52》전략폭격기들사이의 대규모적인 공동훈련, 해상《자위대》가 하와이의 미해군 기지에서 요격미싸일발사시험 등으로 조선반도정세의 긍정적흐름에 한사코 제동을 걸어보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남을 걸고 제 리속을 채우는데 이끌이 난 정치난쟁이의 교활한 심보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이 노리는것은 《인권》과 《북조선위협》을 코에 걸고 국제적으로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침략야망실현을 위한 무제한한 길을 닦아놓자는것이다. 이러한데로부터 일본은 지금까지 공화국의 《인권》과 《위협》을 집요하게 내들며 저들의 행위를 합리화하여왔던것이다.

그런데 그 구실을 내들기가 점점 힘들게 되어가고있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이전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화해,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기때문이다. 그로 하여 일본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흐름에서 배제되어 특특히 망신만 당하고있다.

이에 벨이 꼬인 일본반동들은 어떻게 하나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지위를 깎아내리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차단하며 정세를 긴장격화로 되돌려세움으로써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기승을 부리고있다.

현시기 일본반동들이 그 어느때보다 반공화국《인권》,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인권관련문서장을 조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내돌리며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하려고 부산스레 놀아내고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적대세력들과 야합하여 《북조선인권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해보려고 책동하였다.

한편 일본집권자는 미국무장관을 만난 기회에 일미사이의 대조선제재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공화국의 무역선을 유엔의 대조선제재명단에 박아넣자 기다렸다는듯이 저들의 독자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본반동들이 집요하게 떠들고있는 《랍치문제》만 보아도 반공화국대결의식고취에 악용해온 정치적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내각관방장관 스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그는 자기가 중의원의 원시절부터 북조선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와 총련시설들에 대한 고정자산세감면조치철회 등을 주도해왔다는 글을 올리였다.

사실 일본이 내흔드는 《랍치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것이다. 외신들도 일본이 떠드는 《랍치문제》는 사실상 상전인 미국도 무시한것이라고 비평하고있다.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가기마련이다.

일본이 아무리 조선반도문제해결에 찬물을 끼얹으며 갖은 훼방을 놀아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의 지향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보는듯...



조선중앙텔레비존
 동남산텔레비존
 만수대텔레비존

나의 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방영일
 수 지식
 상식식
 신도원전
 다매체
 유희



종전의 텔레비존들과는 달리 여러가지 풍부한 기능들이 추가된 지능텔레비존 《소나무》, 손전화기나 관형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오락들을 설치할수 있으며 화면이 크고 초고화질이므로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보는듯 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북새전자기술사는 지능텔레비존 《소나무》를 사용할 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급으로 해결하여줍니다.

국제전화: 00850-2-18111-18999
 화 스: 00850-2-381-4410
 전자우편: cgs21@star-co.net.kp



금강산 온정천의 겨울 본사기자 김금진

세계에서 이름난 금강산의 온천물이 그대로 흘러든다고 하여 그 이름도 온정천,

바위들에도 나무들에도 흰눈이 수북이 내려앉아 펼친 은빛세계는 외금강의 이채로움을 더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7-1882164
<http://www.korean-books.com.kp> (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